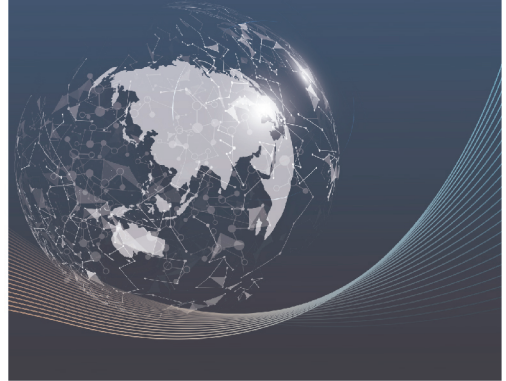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이행계획



CONTENTS

I. 이행계획 수립 배경	4
II. 이행계획 기본 방향	5
01. 자유	5
02. 평화	5
03. 번영	6
III. 세부 이행계획	8
01.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10
02. 법치주의와 인권증진 노력	11
03.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12
04. 포괄안보 협력 확대	15
05.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19
06.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21
07.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24
08.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27
09.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29

I | 이행계획 수립 배경

우리 정부가 지난 2022년 12월 28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인태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는 관여 확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9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정부 각 부처 및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범정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역내·외 주요 파트너국들과 각 급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략 협의를 갖고 구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아세안, 태평양도서국 등 협력 대상국들과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행계획의 발표를 통해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와 협력을 증대해 나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외교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범정부 차원에서 인태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이정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는 이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이행보고서를 발간하여, 주요 고위급 외교활동을 포함한 9대 중점 추진 과제별 주요 진전사항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인태전략의 이행을 총괄하는 고위급 정부 대표를 임명하여, 범정부 이행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외적으로 인태전략 관련 협의체 및 국제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대표하도록 할 것이다.

01. 자유

우리 정부는 규범·규칙 기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역내·외 국가와의 전략 협의체 신설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먼저, 역내·외 국가 및 지역 기구들과 함께 인태 지역의 미래와 역내 질서에 대해 활발히 소통해 나가기 위한 “인태 고위급 포럼”을 신설하고, 이를 정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3년 8월 美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한미일 인태대화를 비롯하여, 여타 주요국들과 인태 지역 내의 다양한 현안 및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자·소다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2023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개최에 이어, 2024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여 역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저해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해외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신형기술, 기후변화, 환경, 보건, 다자무역 등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 분야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공정한 역내 질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제1차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국제회의(REAIM 2023) 공동개최에 이어, 2024년 제2차 회의를 주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 지역 내 외교공관 신설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02. 평화

우리 정부는 역내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안보 분야를 포함하여, 포괄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광대한 해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영역인식(MDA) 플랫폼을 구축하고, 역내국들과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치안기관간 교류, 태평양 도서국 및 동남아 국가 대상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등 역내 해양 법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중대한 도전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토대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대북제재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정신 등에서 표명된 바와 같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03. 번영

우리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세계 10위권 수준 확대를 목표로 기여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인태지역 내 디지털·교육·기후변화 등 현장 수요에 기반한 중점 협력 분야에서 맞춤형 개발협력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역내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투자도 증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는 협력국의 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결합한 5대 중점분야(디지털, 교육,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보건 등)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태평양 도서국 대상 ODA 규모 또한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태지역 주요 협력국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확대·갱신하거나 신규 체결하고,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과의 경험증진자금(EDPF) 협력약정 체결을 추진하여 역내국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금융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태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역내 주요 지역별 협력 기금을 신설 및 확대할 것이다. 또한, 핵심품목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해 관계국들과 협력을 증진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디지털 경제규범 논의 등 통상질서 재편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세부 이행계획

9대 중점 추진 과제

01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1. 인태지역 질서 구축을 위한 역내외 국가와의 소통 강화
2. 한미일 협력 제도화
3. 인태지역 소다자 협의체 협력 확대
4. UN 국제질서 수호 역할 지지



02

법치주의와
인권증진 노력

1. 역내 법치주의 증진 노력 동참
2. 민주주의 · 인권 협력 강화
3. 거버넌스 · 선거 관리 분야 역량 강화 지원



03

비확산 · 대테러
협력 강화

1. '담대한 구상' 바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2. 한미동맹 현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3. 대북제재 이행 강화, 효과성 제고
4. 역내 대테러 논의 및 활동 활성화
5. 국제 우주안보 규범 마련을 위한 대화 및 협력
6. 역내 비확산 논의 및 활동 활성화



04

포괄안보
협력 확대

1. 해적퇴치 및 항행안전 확보 협력
2. 실시간 해양감시 및 정보공유 협력
3. 해양안보 분야 양 · 다자 연합훈련 확대
4. 해양법 집행 및 IUU 대응 협력
5. 양 · 다자 사이버 안보협력 강화
6. 개도국 보건 역량 강화 지원
7.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 협력
8. 나토와의 초국경 안보 분야 협력 확대
9. 역내 안보역량 강화



05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1. 역내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대
2.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협력
3. IPEF 협상 참여 지속 등 자유무역규범 논의 주도
4. 디지털 경제 규범 논의 주도
5.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6.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협력 확대



06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1. 첨단과학기술분야 기술선도국 네트워크 참여
2. 연구개발 관련 국제협력 등 역내 기술협력 강화
3.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4. 디지털 전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5. 개방적이고 투명한 통신망 구축 협력



07

기후변화 · 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1. 역내 탄소중립 지향 기후변화 대응 협력
2. 인태지역 에너지 시장 안정화 공조 강화
3. 친환경 에너지 확대 지원
4. 기후변화 대응 분야 다층적 공조
5. 재해 대응 협력 강화
6. IAEA 등 국제사회와 역내 원자력 안전 · 핵안보 역량 강화
7. SMR 개발 · 인프라 · 규범 논의 적극 참여
8. 인태지역 원자력 시장 진출을 위한 생태계 마련



08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1.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분야 맞춤형 개발협력 시그니처 사업 추진
2. ODA 규모 세계 10위권 확대를 통한 인태지역 ODA 확대
3. 주요 공여국과의 전략적 협력
4. 민간 부문과의 혁신적 협력
5. 인태 4대 지역 협력기금 운용



09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1. 역내 미래세대 교류 심화
2. 역내 학술교류 강화 및 상호 이해 증진
3. 문화교류 다양화 및 쌍방향 소통 확대
4. 역내 신뢰 확보를 위한 정보유통 투명성 강화 협력
5. 외교 인프라 강화
6. 인적연결성 강화



우리 정부는 역내·외 파트너 국가들과 인태지역의 질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다변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구성의 소다자 협의체를 모색할 것이다. 또한,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건설적 기여를 해나감으로써 인태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를 공고화할 것이다.

1.1. 인태지역 질서 구축을 위한 역내·외 국가와의 소통 강화

우리 정부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의 질서 구축을 위해 우리와 인태 지역에 대한 비전 및 협력 원칙을 공유하는 역내·외 국가, 지역기구 등과 각급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인태고위급 포럼’ 개최(연례 회의) 추진
- 한미일 인태대화를 비롯하여 역내 주요국과의 인태 협의체 신설 및 운영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환인도양연합(IORA), 아프리카연합(AU) 등 역내 주요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강화 및 다자협의체 적극 참여

1.2. 한미일 협력 제도화

우리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을 제도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 개최 추진
-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및 국가안보보좌관회의 연례 개최 추진
-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추진
- 한미일 재외공관 간 협력
-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 대응을 위한 협의에 대한 공약(C2C) 이행

1.3. 인태지역 소다자 협의체 협력 확대

우리 정부는 역내 다양한 구성의 소다자 협의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인태 지역 내 협력의 동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일호뉴 고위급 회의 개최 추진
- 한미호 실무급 회의 개최 및 북태평양 지역 국가 간 협력가능성 모색을 위한 고위급 협의 추진
- 쿼드(Quad)와 첨단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기능적 협력 모색

1.4. 유엔(UN)의 국제질서 수호 역할지지

우리 정부는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유엔의 역할을 지지하고, 다자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건설적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의에 유지 및 증진에 기여
- 유엔총회 및 관련 회의 적극 참여
-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및 PKO 기여 공약 이행

02 법치주의와 인권증진 노력

우리 정부는 국제법·국제규범 성안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함으로써 역내 법치주의 증진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민주주의 정상화의 주축, 역내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인권 증진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1. 역내 법치주의 증진 노력 동참

우리 정부는 국제법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역내 법치주의 증진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 총회 참석 및 유럽평의회 국제법률국장회의(CAHD) 옵저버 참석 등 역내·외 주요 협력 파트너와의 소통 지속 강화
- UN·국제사법재판소(ICJ)·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국제해저기구(ISA) 등 국제법 관련 국제기구·재판소와의 협력을 통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 구축 노력에 동참
- 국제형사재판소(ICC)와의 협력 지속 강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헤이그국제사법회(Hcch)의 국제규범 성안에 참여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활동 지원,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회의 개최 등 국제인도법 이행 증진 노력

2.2. 민주주의·인권 협력 강화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 국가간의 연대와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북한 인권, 분쟁하 성폭력 예방 등 역내 인권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 2024-26년간 인태국가 대상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사업에 1억불 규모 지원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추진
- 한미일 여성 역량강화 이니셔티브 추진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활동 지원 및 북한인권 관련 국제포럼 개최

2.3. 거버넌스·선거 관리 분야 역량 강화 지원

우리 정부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춘 민주적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역내 민주주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국의 반부패 정책·제도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 지원
 - 유엔개발계획(UNDP) 청렴포털 공유 사업,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사업 등
- 선거 관련 지식·정보 교류 및 선거관리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지원
- 정책 결정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계 역량 강화 지원
 - 몽골·탄자니아·베트남 통계역량 강화 사업, 한-에티오피아 통계협력 MOU 체결 추진 등

03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및 대북제재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역내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우주안보 등 군축비확산 논의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3.1. 담대한 구상 바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하여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미·한미일 정상·장관·북핵수석대표급 협의 개최
- 한반도 정세·'담대한 구상' 관련 대아세안 아웃리치 강화
- 한반도클럽·평화클럽 등 북한 관련 주한공관 대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3.2. 한미동맹 현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우리 정부는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체계를 구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각종 외교·국방 협의체 등을 포함한 다층적 한미 정책협의 추진 및 전략적 소통 강화
- 한-미 핵협의그룹(N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확장억제 협의체간 상호보완적 운영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지속 강화
- 한미동맹의 우주·사이버 안보 영역 적용 관련 후속조치 협의
- 각종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규모 확대
- 한미일 장관회담 등 고위급 정책협의 및 정례협의체 운영
- 한미일 3자훈련 다년간 훈련계획 수립에 따른 훈련 정례화
-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3.3. 대북제재 이행 강화, 효과성 제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이를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북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단념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주요 우방국간 역내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한 긴밀한 정보공유, 제재 이행 미진 국가 대상 공동 데마세 등 지속 추진
-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감시 및 채증 노력 지속 강화
-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 차단을 위한 우방국과의 공조 강화 및 민간 인식 제고 노력 지속
- 북한의 확산금융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3.4. 역내 대테러 논의 및 활동 활성화

우리 정부는 유엔 및 양자·지역협력체 차원의 대테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협력체 차원의 대테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양자 대테러협의회 개최
- 유엔 대테러실(UNOCT)과 대테러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에 기반한 NATO와의 대테러 협력 추진
- 역내·외 국가들과 대테러 훈련, 대테러 역량강화 등 협력 추진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아태자금세탁방지기구(APG) 참여를 통해 자금세탁,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3.5. 국제 우주안보 규범 마련을 위한 대화 및 협력

우리 정부는 우주 안보 주도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역할을 강화하고, 우주 규범 논의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미, 한-호 우주정책대화, 한미일 우주안보협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 우주안보 개방형실무작업반(OEWG),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우주 군비경쟁방지 정부전문가그룹(PAROS GGE) 참여 등을 통한 관련 규범 논의 적극 대응
- 우주환경 보호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국내 우주환경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외국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협력 등 지속 추진

3.6. 역내 비확산 논의 및 활동 활성화

대한민국은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역내 국가들의 비확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태지역의 비확산 규범 공고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인태지역 국가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확보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서울워크숍,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등 계기 역내 비확산 역량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지속 및 강화
-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역내 주요국과 양자 군축비확산 협의회 개최
-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지역 아웃리치 참여

04 포괄안보 협력 확대

우리 정부는 해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 해양안보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역내 해상교통로 보호 및 항행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해양영역인식(MDA)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또한, 양다자 연합훈련, 해양치안기관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재해재난 및 불법어업 등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공조를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안보, 보건안보 등 21세기의 복합적인 안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외 전략적 파트너들과 포괄안보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4.1. 해적퇴치 및 항행안전 확보 협력

우리 정부는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이행, 청해부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인태 지역의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항행안전 확보를 위한 공조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이행 및 정보공유센터(ISC)*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
* Information Sharing Center, ReCAAP 사무국 기능 수행
- ReCAAP과 해적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 국내 개최 추진
- 청해부대 파견을 통해 해적퇴치 및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 연합해군사령부, EU해군사령부와와 협력하여 대해적작전 수행
- 미국의 인태사령부, EU해군사령부, NATO유럽동맹군최고사령부등에 연락 장교 파견, 이를 통한 우리군과의 상호 운용성 증진

4.2. 실시간 해양감시 및 정보공유 협력

우리 정부는 해양영역인식(MDA)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시간 해양감시와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해양정보 빅데이터화, AI를 활용한 해양상황 분석·예측시스템 개발 등 MDA 플랫폼 구축 및 역내국과 정보 공유 추진
- 해양수산부, 해군 등 유관기관 수집·관리 해양정보의 연계 추진
- 다국적 해양정보공유훈련(MARISX, Maritime Information Sharing Exercise)* 참여
* 싱가포르 해군 주관으로 격년으로 개최되는 도상 훈련

4.3. 해양안보 분야 연합훈련 확대

대한민국은 역내 주요 다자간 연합훈련에 참가하고, 역내·외 국가와의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환태평양훈련(미국), 퍼시픽드래곤(미국), 코브라골드(태국), 카만닥(필리핀), 코모도(인도네시아), 탈리스만세이버(호주) 등 역내 주요 양자·다자간 연합훈련에 참여하여 역내 국가들과의 연합작전수행능력 강화

4.4. 해양법 집행 및 IUU 대응 협력

우리 정부는 인태 지역 해양치안당국간 교류를 증진하고, 해양 법집행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해상 안전을 확보하고 수산 주권 보호를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2024년 제20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회의(HACGAM) 한국 개최
- 인도네시아 해양경찰청 등 해양치안기관 초청연수를 통한 역내 해양 치안기관 역량 강화 지원
- 역내 불법어업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이행 및 신규 사업 발굴
 - 태평양도서국 불법어업행위 실시간 원격감시 사업 및 태평양도서국 불법어업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추진, 한미일 3국 공동 아세안 수역 내 불법어업 근절 지원 방안 모색 등

4.5. 양·다자 사이버 안보협력 강화

우리 정부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이버 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사이버 규범 수립 및 공고화 노력에 기여하고, 초국경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다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역내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미국, 싱가포르, 호주, 인도 등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회의(CCWG) 운용을 통한 한미동맹의 사이버 협력 강화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ICT안보 회기간 회의 참여
- 서울안보대화(SDD) 내 사이버 워킹그룹 운영,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사이버안보 분과회의 참여 및 국제훈련 실시 등 다자협력 주도

- UAE, 폴란드, 인도 등 우방국과 사이버안보 양자 파트너십 제고
-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국제 사이버 방어훈련 적극 참가
- 한-미 간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 체계 고도화
-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 침해사고 대응 교육**, 아세안 사이버 쉴드4*** 등 개도국 사이버안보 역량강화 추진

* CAMP(Cybersecurity Alliance for Mutual Progress): 세계 각국과의 정보보호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 지원

** APISC(Asia Pacific Information Security Center):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침해사고대응팀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대응 실무교육 시행

*** ACS(ASEAN Cyber Shield):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아세안 지역의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양성

4.6. 개도국 보건 역량 강화 지원

우리 정부는 백신 및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 선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보건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2024년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개최
- 역내 보건 협력 및 국가 보건 역량 강화 추진
 - 피지 국립의과대학 전문의료인력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비감염성 질환 및 디지털헬스 중심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사업 검토 등 태도국 대상 협력 확대, 스리랑카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 사업, 우리 제약기업 및 의료기관의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 베트남 의료인 연수 등 백신·바이오 분야 협력 지속
- 이종욱 펠로우십* 사업을 통한 아시아·태평양도서국·아프리카 보건의료 인력 양성 지원
 - * 故이종욱 박사의 의지를 계승하여, 개도국 대상 보건의료인력의 초청 및 연수
-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중·저소득 국가의 바이오 인력 교육 확대
 - *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력 증진을 목적으로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중심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을 단독 지정

4.7.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 협력

우리 정부는 전세계적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 및 역내국과의 협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팬데믹 조약 마련을 위한 정부간 협상 기구(INB)를 통한 협상 참여
-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을 위한 국제보건규칙 실무그룹(WGIHR) 참여
- 미래 팬데믹 예방·대응 및 대비를 위한 공동선언문(안) 관련 한일중 보건부 간 합의 등 동북아시아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협력

4.8. NATO와의 초국경 안보 분야 협력 확대

우리 정부는 사이버, 비확산, 신형 기술 등 초국경적 안보 도전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며, 2006년 이래 NATO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추진해 온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이행
 - *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 : 기존 협력문서인 개발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를 대체하는 문서로, 비확산·사이버방위·신형기술 등 11개분야 협력 체계화, 제도화
- NATO 신탁기금 참여 등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
- NATO 확대 북대서양이사회(NAC+4) 참석

4.9. 역내 안보역량 강화

우리 정부는 전통·비전통 안보를 망라한 역내 안보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조성하고 역내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등 호혜적 방산협력을 통해 방산네트워크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인태지역 국가들의 안보역량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방위역량 증진을 희망하는 역내 국가들과의 맞춤형 방산 협력 추진
- 퇴역 함정 양도, 함정장비 운용법 교육 등 역내 국가들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 지원

05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우리 정부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제관계가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의를 강화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디지털 경제 규범 형성, IPEF 잔여 협상 및 이행 과정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포용적인 인태 지역의 경제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인태지역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술을 공유하여 인태 지역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5.1. 역내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대

우리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회복력 제고를 포함한 경제안보 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역내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경제안보 협의체 활성화】**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관련 전략협의체 운영 및 경제공동위·경제협력위원회 등 기존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경제안보 협력기반 강화
 - 한미·한일·한미일 경제안보대화 및 한캐 외교·산업(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지속 개최
 - 한-인도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추진 및 경제공동위, 경제협력위원회 등 기존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경제안보 협의 강화
- **【금융】** 아세안 등과 동아시아 지역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 적극 참여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 실효성 제고 및 역내 금융안정화 추진
 - 핀테크, 오픈뱅킹 등 역내 금융협력 과제 지속 추진
- **【식량】** 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 참여
 -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협력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 협력 확대
 - 개도국 식량원조 사업 확대
 -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

5.2.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협력

우리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양자·소다자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을 안정화 및 다변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미 재외공관 조기경보 시스템 연계 시범사업 확대 검토
- 한-개 핵심광물 공급망 MOU(2023.5.17 체결) 기반 협력프로젝트 발굴 지속 추진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핵심광물 분야 소다자 협의체 적극 참여 및 민관파트너십 확대 노력
-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및 한-몽 희소금속센터 조성 사업 추진, 한-인도네시아 핵심광물 공동연구 센터 설립 추진

5.3. IPEF 협상 참여 지속 및 역내 자유무역규범 논의 주도

우리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및 기체결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작업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증진하고 역내·외 보호주의에 대응할 것이다. 또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잔여 협상 및 이행에도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역내 경제 협력 질서 구축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RCEP 협정의 원활한 이행 촉진을 위한 당사국간 공동위원회 및 산하 이행위원회, 장관회의 등 참여
-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추진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진전
- IPEF 각 협정의 비준 및 서명, 무역협정 협상 참여, 협정의 향후 이행 등 관련 협력 지속

5.4. 디지털 경제 규범 논의 주도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디지털 통상 관련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경제권과 디지털 경제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복수국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발효
 - * 원회원국은 상-뉴-칠 3국이며, 우리나라는 DEPA 최초 가입국으로서 23.6월 가입협상 실질 타결
-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및 IPEF 디지털 경제분과 협상 실질 타결 추진
- 양자협정을 통한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 지속
- 한-EU간 디지털통상협정(10.31, 협상개시 선언)을 통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 개인정보의 국경간 안전한 이동 관련 국제규범 논의 동참

5.5.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우리 정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APEC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출범
- APEC 의장국 트로이카(전-현-후 3개국) 협력 체계 구축

5.6.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협력 확대

우리 정부는 스마트시티, 스마트모빌리티,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인프라 구축 노하우 공유 등 역내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아세안, 아프리카 등 해외 도시에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지원 등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강화
-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한-아세안 교통협력 포럼 등 교통 분야 국제협력 강화
- '25년 ITS 아태총회 및 '26년 ITS 세계총회 개최 등 지능형 교통체계(ITS) 협력 체계 강화

06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양자과학, 첨단바이오 기술 등 국가 안보와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신흥기술 분야에 있어 기술선도국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연구개발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감으로써 인태지역의 기술적 역동성을 독려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ICT 역량과 디지털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 공유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6.1. 첨단과학기술분야 기술선도국 네트워크 참여

우리 정부는 주요 과학기술 강국과의 핵심·신흥기술 협의를 강화하고, 주요 다자협의체 내 핵심·신흥기술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 양

자, 첨단바이오, 차세대 통신, 우주 분야 역내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등 과학기술 강국과 핵심·신흥기술 협의채널 신설·운영 등 양자 협력 강화
-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 등 핵심·신흥기술 다자협의체 참여 및 다자협력 강화 지속
- (반도체) 반도체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 과기부-미국립과학재단(NSF)간 반도체 공동연구 펀딩 신설 추진 등
- (인공지능) AI 관련 고위급 국제행사* 국내 개최로 AI 규범 논의 주도, 한-개 인공지능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 기관간 협력 추진
* △미니 AI 안전성 정상회의 한-영 공동개최(화상) △글로벌 AI 포럼 △제2차 「책임있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등
- (양자) 주요국과 양자과학기술체계 구축* 및 국내 산학연-해외 R&D 기관간 매칭, 네트워크 구축, 공동연구 등 지원
*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 체결('23.4), 양자에 관한 다자간 협의체(2N vs 2N) 신규참여, 한-미 쿼텀 라운드 테이블 개최('23.5) 등
- (첨단바이오) 'Boston-Korea 프로젝트'* 신설 등 국제협력 확대 추진
*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보스턴 선도기관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 지원
- (차세대통신) 미국, 핀란드 등과 6G 국제공동연구 추진 및 '6G Global' 행사 개최 등 6G 공급망 다양성 등을 위한 주요국과 협력체계 강화
- (우주) 탐사·교육·산업으로 협력 다양화, 신흥국과 협력관계 강화

6.2. 연구개발 관련 국제협력 등 역내 기술협력 강화

우리 정부는 역내·외 국가와의 안정적인 양·다자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기술 블록화 추세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인도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개 과학기술혁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 통한 신규 협력의제 발굴
- 베트남 VKIST* 2단계 사업 지원을 통한 기반 시설 활용 연구협력 추진
* Viet Nam-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KIST를 모델로 한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 지속
* 2021-27년간 955억유로(130조원)를 지원하는 EU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 / 과학기술역량, 개방경제, 지재권 보호 등 요건 충족 제3국에 준회원국 가입 제안

- 한국 학부생의 독일 연구기관(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등)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본격 추진
-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23.11월)에 따른 11개 디지털 분야* 협력 추진
 - * 미래 통신 및 공급망 복원력, 반도체, 인공지능, 기술생태계 조성, 데이터, 국제규범, 기술표준, 인터넷 거버넌스, 공정하고 경쟁적 시장, 사이버 보안, 온라인 안전

6.3.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우리 정부는 정보접근센터 구축, ICT 정책결정자 대상 협력 채널 운영을 통해 국가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개도국정보접근센터 운영 및 '24년 부탄 등 인태지역 내 개도국정보접근센터 신규 구축
- 해외 IT정책결정자 협력 채널 운영을 통한 한-개도국간 공동협력과제 발굴
- '24년 국제기구·개도국 고위정책결정자 대상 글로벌 ICT 리더십포럼 개최

6.4. 디지털 전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우리 정부는 역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통관·조달 등 전자 행정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 추진
 - *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데이터 및 AI 관련 사업 실시
- 전자 행정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환 경험 공유
 - 관세행정 전자통관시스템 현대화 사업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 나라장터시스템(전자조달) 협력 강화 사업 (ADB 공동 아태지역 연수, 개도국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

6.5. 개방적이고 투명한 통신망 구축 협력

우리 정부는 개방형 무선접속망 활성화를 통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통신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미 오픈랜 실무회의 개최를 통한 양국 오픈랜 기술·정책 동향 공유
- 미·영·싱가포르와 오픈랜 국제공동연구 진행
- 미·일·유럽 등 외국 기업과 국내기업간 공동연구 및 공동실증 사업 확대

우리 정부는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의 여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여파인 재해 및 재난 대응 분야 협력 등 다양한 국가와 각급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직면하여,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및 효율적이고 안전한 원자력 이용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감으로써 역내 에너지 안보 관련 협력을 주도할 것이다.

7.1. 역내 탄소중립 지향 기후변화 대응 협력

우리 정부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협정 체결 등 기후변화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의 국제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무공해차, 녹색해운, 메탄 감축 분야에서 역내국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 국제감축사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한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MOU 체결 및 이행,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시범사업(베트남·몽골·라오스 등) 추진 및 사업 규모 확대
- (탄소시장) 캐나다 주도 글로벌 탄소가격 챌린지 통한 협의 강화
- (무공해차)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시범사업 지원 등 역내국가 대상 전기차 생태계 조성 지원
- (녹색해운) 한-미 녹색해운항로 공동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무탄소 연료공급망 구성 및 실증기술 개발 R&D 추진
- (메탄감축)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PARMA) 하 시범사업 추진
- (기후변화 적응)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역내 역량 증진 기여
- (기후변화 대응 기술 협력)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한국 연락사무소 설립 및 운영 지원, 한-UNDP 협력사업을 통한 동남아 4개 국가(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대상 과학기술·ICT 활용 시범사업 추진

7.2. 인태지역 에너지 시장 안정화 공조 강화

우리 정부는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태지역 국가간의 공조를 강화하여 역내 전통 에너지 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고, 글로벌 넷제로(net-zero) 달

성 및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제10차 한미 에너지 안보대화 개최
- 한일 및 한미일 에너지 안보대화 재개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및 인태지역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청정에너지 컨퍼런스 지속 개최

7.3. 친환경 에너지 확대 지원

우리 정부는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태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국가의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댐 건설 지원 사업
- 멜라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역량강화 사업
- 마셜제도 해수온도차 발전 사업

7.4. 기후변화 대응 분야 다층적 공조

우리 정부는 역내·외 국가들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초국가적 도전과제에 대한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층적 공조를 지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대화 연례 개최
- 한일중 환경장관회의(TEMM) 및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 등 역내 국가와의 정례 협의체 개최 추진
-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전략적 추진
* 2022년 출범한 한-인도네시아 주도의 기후변화 다자협력 플랫폼
- GTI 플랫폼을 활용한 그린 ODA 발굴
-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기후변화 적응·저감 협력 MOU 체결 추진

7.5. 재해·재난 대응 협력 강화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이상기후 및 재난·재해에 대한 역내 국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인태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경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역내 홍수 조기경보체계 확대(필리핀 울롱가포시, 라파즈군 및 피지 나이타시리주, 마두아타주)
- 필리핀 태풍감시·예측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및 피지 해양기상예측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 태평양도서국 기상재해 경감 지원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및 태평양도서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안공간 계획 지원 사업 추진
- 개도국 기후스마트농업 지원 사업
- 사모아 기후변화 대응 해양산성화 관측 고도화 및 지속성 확보 지원 사업
- 피지 마코가이 수산양식연구소 재건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사업

7.6. IAEA 등 국제사회와 역내 원자력 안전·핵안보 역량 강화

우리 정부는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를 위한 역내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고효율 청정 에너지인 원자력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이용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인태지역 원자력 협력국 및 신흥 원자력 도입국 대상 핵안보 국제교육
 - 아태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대전 소재)을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공동 연구사업
- *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통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조약으로, 한국내 RCA 사무국 설치

7.7. SMR 개발·인프라·규범 논의 적극 참여

우리 정부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유연한 원자력 에너지 활용을 위한 소형모듈원전(SMR)의 기술개발과 SMR 확산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FIRST* 등 SMR 관련 국제협력 참여
- * FIRST(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R Technology) : 바이든 행정부에서 21.4월 기후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개도국 SMR 도입 지원 협력사업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추진
 - 아태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 내 아태정책정보센터 운영, 공동연구 발굴

7.8. 인태지역 원자력 시장 진출을 위한 생태계 마련

우리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갖춘 원자력 발전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인태지역의 원자력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생태계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인태지역 주요 국가와 고위급 교류 계기 원전 협력 협의 추진 및 정보교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한 원전 협력 생태계 조성 노력
 - *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개 문제 등 원전 협력 협의
 - * (베트남) 한수원 중앙연구원-베 원자력연구원 SMR MOU('23.6) 이행 (인도네시아) 정부간 원전협력 MOU 체결 추진('24)한국수력원자력-인니 전력공사 발전사(누산타라) SMR 협력 MOU('23.12) 이행, 한국원전산업수출협회-인니 원자력협회 원전협력 MOU('23.9) 이행

08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우리 정부는 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기여를 강화함으로써 인태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이를 통한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2024~26년 간 인태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사업에도 1억불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태 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공유하는 주요 공여국과의 파트너십, 민간 부문과의 혁신적 협력을 통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8.1.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분야 맞춤형 개발협력 시그니처 사업 추진

우리 정부는 우리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기여 외교를 통해 인태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토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인프라, 식량안보, 보건 등 인태 지역 대상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것이다.

- (기후변화 대응)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습지 생태계 관리 및 지역주민 소득 향상 지원 사업, 라오스 앳따쁘주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및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통합프로그램 사업, 피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역량강화 사업, 모잠비크 리콩고 강유역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등

- (디지털) 방글라데시 디지털 지방자치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확대 사업, 인도네시아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양성 역량강화 사업, 라오스 디지털 농지정보관리플랫폼 구축 사업 등
- (인프라) 한국-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 필리핀 두마게떼 신공항 건설 사업, 케냐 나이로비 지능형교통망구축 및 교차로 개선 사업 등
- (식량안보) 필리핀 스마트농업을 적용한 서비사야스 지역 고소득작물 가치사슬 강화 사업, 베트남 북부지역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녹색 순환 경제 지원 프로그램 등
- (보건) 캄보디아 당까오 후송병원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라오스 성생식 모자보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준 강화 및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 사업, 네팔 박타푸르 취약지역 빈곤층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인프라 개선사업 등

8.2. ODA 규모 세계 10위권 확대를 통한 인태지역 ODA 확대

우리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공약 하에, 인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유·무상 ODA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24년 무상원조 예산(정부안 기준) 44,992억원으로 인태지역에 대해서는 약 6,260억원 규모 사업 추진 예정으로, ODA 규모 지속 확대를 통해 우리 위상에 걸맞은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
- '24년 EDCF 예산(정부안 기준) 22,08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2% 증액 등 정부 ODA 규모 확대 목표에 따라 승인 및 집행 규모 점진 확대 추진
- 인태지역 주요 협력국과 EDCF 기본약정을 확대·갱신 및 신규 체결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도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대형·고부가가치 인프라 사업 추진
 - * 방글라데시('23-'27년 30억불, 체결 완료), 필리핀('22-'26년 30억불, 체결 완료), 베트남('24-'30년 20억불, 체결 예정), 인도('23-'26년 40억불, 체결 예정) 등
- 필리핀과 '24-28년간 30억불 한도 EDPF* 협력 약정 체결 추진, 인도네시아와 협력약정체결 협의 개시**
 - * 수출입은행이 조달한 재원으로 개도국에 양허성 자금을 지원, 시장조달금리와외 차이(이차)는 정부재원으로 보전해주는 사업
 - ** 방글라데시와 '23-27년간 30억불 한도 EDPF 협력 약정 체결, 베트남과 '23-30년간 20억불 한도 EDPF 협력 약정 체결
- 필리핀 대상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신규사업 추진
 - *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지원 및 국가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기재부가 추진중인 정책·기술자문 프로그램

8.3. 주요 공여국과의 전략적 협력

우리 정부는 인태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주요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화하여 인태전략과의 정합성을 높인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미,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및 2025년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 국내 개최
- 주요 공여국과의 개발협력 협의 추진

8.4. 민간 부문과의 혁신적 협력

우리 정부는 개발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 및 민간의 참여를 통해 개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민간의 투자와 금융지원을 활성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업협력 프로그램 및 시민사회 협력사업 운영
-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포럼 등
- KSP 민간 사업 제안제를 통한 민간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도입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통한 우리 기업의 대형 인프라 수주 지원

8.5. 인태 4개 지역 협력기금 운용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4개 지역 협력 기금 운용을 통해 역내 기여를 강화하고, 신규 협력 사업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인도양 협력기금(가칭) 신설 및 아세안 관련 3대 협력기금*, 한-PIF 협력기금, 한-AU 협력기금 확대
- * 한-아세안 협력기금, 한-메콩 협력기금,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09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인태 지역에서 인적 교류, 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는 건강하고 성숙한 역내 관계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특히, 미래 세대간 교류를 통한 신뢰와 우정, 학술 교류를 통한 인재 육성은 인태 지역의 평화

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역내 신규공간 설치 등 외교 인프라 강화, 인적 연결성 강화를 통해 역내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는 한편, 역내 정보량의 폭발적 증대 등에 대응하여 역내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신뢰 확보를 도모할 것이다.

9.1. 역내미래세대 교류 심화

우리 정부는 인태 지역의 미래 세대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젊은 세대간 상호 신뢰와 우정을 구축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역내 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미 청년 특별교류 프로그램 추진
-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 개최
- 한일 대학생 교류 사업을 통한 한일 차세대간 소통 강화
- 아세안 기술직업훈련 교육(TVET) 학생교류 사업*을 통한 쌍방향 학생 교류
 - * 한-아세안 직업교육 관련 부처가 지정한 고등직업교육 기관 간 쌍방향 학생교류 및 상호 학점인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한일중 미래세대 교류사업을 통한 3국 청년간 소통 강화
- 한-미-아세안 청년캠프(YCAFE) 개최를 통한 인태지역 청년교류 활성화

9.2. 역내 학술교류 강화 및 상호 이해 증진

우리 정부는 학술 교류 및 한국어 교육 등 교육·학술 분야 교류 확대를 통해 인도 태평양의 역동적 경제 성장을 주도할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공동의 인식과 상호 이해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신규 선발 규모 확대
 - * 전 세계 157개국에서 우수 외국인 학생을 선발·초청하여 한국어 교육, 국내대학(원) 학위과정 수학을 지원 (67~)
- 인태지역 대상 KOICA 석박사 학위 프로그램 지속 지원 및 확대 추진
-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추진
 - * 해외 현지정부·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 초·중등 정규학교에서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9.3. 문화교류 다양화 및 쌍방향 소통 확대

우리 정부는 인태 지역 내 다양한 문화와 공감하고 교류하여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한-태도국 문화행사
- 한-캐 「2024-25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
- 태도국 등 개도국 대상 스포츠 발전 지원 사업 확대 추진

9.4. 역내 신뢰 확보를 위한 정보유통 투명성 강화 협력

우리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해외 허위정보가 역내 신뢰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조를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정보 공간의 건전성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 해외 허위정보 대응 관련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9.5. 외교 인프라 강화

우리 정부는 인태지역 내 대한민국 상주 공관을 신설하고, 양·다자 고위급 행사 개최 등 역내 국가 외교당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다변화하여 인태 지역내 외교적 존재감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고위급 교류 및 각급 교류 강화
- 주마셜제도 상주공관 신설 등 외교적 인프라 강화
-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 외교관 대상 한국어언어문화연수 등 외교관 및 외교부간 교류

9.6. 인적연결성 강화

우리 정부는 인태지역 내 인적 교류 및 소통의 확대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된다는 인식 하에 인적 연결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 인태지역 인사 방한 초청 사업 추진
- 한-아세안 방문학자 프로그램 확대 추진
- 역내·외 싱크탱크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역내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태평양 동맹 회원국 주요 싱크탱크와의 인태전략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 한·인·미 3자간 싱크탱크 협의체 신설 추진 등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이행계획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대한민국정부

